

“계장님, 연가 사유가 왜 궁금하십니까?”

광주시, 즐거운 직장생활 ‘조직문화개선 10가지 약속’ 추진 ‘연가사유 묻지 않기’ 등 만족도 높아...하반기 추가 방안 마련

“연가 사유를 묻지 마세요.”
광주시가 ‘연가(年假) 사전 허락’, ‘간부 모시기 식사 당면제’ 등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개선을 담은 ‘즐거운 직장생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원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따뜻한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TF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TF를 구성하고, 올 한해 추진할 개선과제인 ‘조직문화개선 10가지 약속’을 마련,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10가지 약속은 ▲따뜻한 말 사용하기 ▲뚝뚝한 업무지시 ▲스마트폰 NO 퇴근보장 ▲부서장 없는 날 운영 ▲연가 사용권장제 활성화(연가 사유 묻지 않기 등) ▲당당하게 특별휴가 챙기기 ▲가족친화프로그램 백프로 달성 ▲인사말, 시나리오 작성생략 ▲부채중 업무보고 폐지 ▲식사당면제 없애기 등이다.

시는 시행 2개월만인 지난 7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10가지 약속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총 응답자 855명 중 90%에 이르는 직원들이 조직 문

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연가사유 묻지 않기’(94%), ‘퇴근 후 휴식권 보장’(93%) 분야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식사당면제 없애기’ 등이 지목됐다. 식사 당면제는 과잉별도 순번을 정해 간부를 모시고 점심식사 등을 하는 관행으로, 직원들 사이에선 “밥조차 마음 편하게 못 먹는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광주시청의 한 7급 직원은 “사실 10가지 약속은 당연히 개선해야 할 내용으로, 대부분 부서에선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극히 일부에선 연가 사전 허락제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직문화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조직개선 프로젝트를 좀 더 강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상반기부터 진행중인 ‘10가지 약속’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간부와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직원과 간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이용섭 시장의 격무부서 ‘깜짝방문’ 등을 활성화하고,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MZ세대와의 소통, 멘토·멘티 등과의 비대면 교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용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올해를 조직문화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상반기부터 10가지 약속 과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건강한 직장문화가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추석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27만원 대형마트 38만원

작년보다 1.5%·2.4% 증가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추석을 8주 앞둔 지난달 31일 기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 27만4500원으로 지난해보다 1.5%(4000원) 늘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 38만3820원이 필요해 2.4%(9090원) 더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생산량 부족 등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과일류는 올해도 계속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배는 저장 재고가 소진되면서 좋은 품질의 배가 귀해져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물가정보는 늦게 찾아온 가을장마가 길어지며 당분간 과일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견과류 중에서는 잣과 대추 가격이 지난해 생산량이 줄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입 감소로 공급량도 감소하면서 전통시장 기준으로 각각 62.5%, 40.0% 올랐다. 나물류에서는 시금치와 고사리, 도라지 가격이 올랐고 지난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소고기는 그 여파가 계속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물가정보는 채소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올랐으나 지난해 긴 장마 등 기상 악재로 급등했던 채소류 가격이 올해 절반 가까이 떨어지면서 전체 비용은 지난해와 비슷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이미 2019년 대비 16%가량 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물가정보는 불철 기상 악재가 올해도 이어진 데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입 감소와 작업량 부족 역시 높은 물가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완도 당목항·영광 향화도항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 내년부터 국비 851억원 투입

완도 당목항, 영광 향화도항이 충남 태안 영목항과 함께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개정한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따라 어선 이용 빈도, 어항 방문객 수, 배후인구 규모 등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으로 인정된 전남 2개소를 포함해 전국 3개소를 9월 1일자로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했다.

완도 당목항과 영광 향화도항은 그동안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기반시설이 미비해 어업인의 어업활동에 불편이 있었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규모 있는 투자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어항 현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어항은 어획물의 인양, 위판, 출어 준비 및 어선 피난 등을 위한 항구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어선 정박 등 전통적 수산업 지원 기능과 함께 해양관광 및 레저 기능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예정이다. 완도 당목항은 40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해권 수산 거점이자, 인근 금일도, 평일도를 잇는 해상교통 및 관광 거점어항으로 개발한다.

영광 향화도항은 4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남해권 대외어항이자, 인근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를 잇는 해상교통·관광 거점어항으로 개발한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당목항, 향화도항을 해상교통과 수산물 유통 거점으로 개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2019년에 지정해 실시할 계획이던 고층 오탁항과 신안 송도항도 사업을 신속히 착수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대병원 ‘최첨단 스피드게이트’ 설치
전남대병원이 1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립대병원 최초로 명부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없앤 ‘최첨단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다. ‘스피드게이트’는 환자·보호자·직원 등을 짧은 시간에 방역 절차를 거쳐 다수를 출입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다. <전남대병원 제공>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유해 사후 200여 년 만에 발견

완주 초남이성지서 복자 윤지충·권상연·윤지현 등 3명 확인

한국 천주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된 복자(福者)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이어진 박해로 순교한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가 사후 200여 년 만에 발견됐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1일 교구 ‘호남의 사도 유향 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에 있는 초남이성지의 바우베기에서 성역화 작업을 하던 중 순교자로 추정되는 유해와 유물이 출토됐다”며 “유물을 연구하고, 유해를 면밀하게 검사한 결과 세 복자의 유해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는 1791년 신해

박해 때 전주 남문밖(전동성당 터)에서 참수됐다. 두 사람은 조선교회에 내려진 제사금지령을 따르다가 신주를 불태우고, 천주교식 장례를 치렀다가 모진 고문 끝에 죽임을 당했다. 이들은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내놓은 한국 천주교회 첫 순교자로 기록됐다.

윤지현 프란치스코는 윤지충 바오로의 동생이다. 형이 순교한 10년 뒤인 1801년 신유박해 때 능지처참형을 받고 순교했다. 세 사람 모두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됐다.

세 복자의 유해가 발견된 곳은 또 다른 복자 유향 겸 아우구스티노 가족이 1914년 치명자산성지로

이전하기 전까지 묻혀있었던 곳이다.

전주교구는 이곳을 성역화하는 작업 과정에서 10기 무연고분묘에 대해 개장공고를 했다. 연고자가 나타나 1-2호기를 제외하고서 8기의 묘를 개장한 결과 5호기와 3호기 무덤에서 유해와 함께 ‘백자사발지석’을 발견했다. 지석(誌石)은 죽은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무덤 소재를 기록한 것이다.

전주교구는 전문가들에 의뢰해 백자사발지석의 명문을 판독한 결과 각각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의 인적 사항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8호 묘지의 유해는 윤지충 바오로 유해와 해부학적으로 유사했는데, 사료 검토, 유해 정밀 감식 등을 거쳐 윤지현 프란치스코와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본사인사
▲김일환 : 예향 전무 겸 사업본부장 (9월 2일자)

투자, 하실분

- ▶ 덕남동, 빛을 전대병원 인근
- ▶ 임야 661㎡(구 200평) 지분매매
- ▶ 장/단기 개발호재 다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매 - 6000만원(평당 30만원)

증거환영. 010-3605-5000

여수만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만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사업개요**
 - 사업명: 여수만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만홍동 일원
 - 사업규모: 406,152㎡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년 9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전남체육공원 내 보조구장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전남체육공원길 74)
- 3. 코로나19 관련 협조사항**
 - 공청회 개최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공청회장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공청회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인적사항 및 체온 확인 후 공청회장 출입이 가능하며,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 4. 기타사항**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021년 9월 9일(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여수시 공영개발과(Fax 061-659-5850)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09, 3706) 및 여수시 공영개발과(061-659-4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2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쿠팡 광주 물류센터 오픈! 계약직 사원 모집

쿠팡 광주 물류센터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근무 시간	주간: 09:00 ~ 18:00 야간: 19:00 ~ 04:00 주 5일 근무 (주 2회 휴무)
급여 조건	주간: 192만 + @ 야간: 240만 + @ 연장, 특근 발생 시 추가 지급
통근 버스	광주 전 지역 운행
복지 후생	퇴직금, 연차, 단체상해보험, 명절 선물, 경조 지원, 식사제공
업무	물류(입고, 출고, 재고) 지게차/허브(분류, 상하차)
지원 자격	성별 및 학력 무관 성년인 자 [단, 정년(60세) 미만인 자] 초보 가능, 주부 가능, 동반 입사 가능

문자 or 전화지원 : 010-9664-1299
광주센터/희망 근무조/성함/생년/전화번호/근무가능기간
예시) 광주센터/주간/홍길동/1970/010-1234-5678/3개월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이장사항이 바라며 등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분묘위치: 전남 곡성군 죽곡면 삼태리 산22-2
- 분묘가수: 3기
-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개장방법

- ①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 ②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 안치장소: 전남 곡성군 청계공원
- 안치기간: 10년
-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신고처: 김진락 010-3644-2215
- 신고시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사실확인 등

·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9월 2일
위공고인 : 김진락 010-3644-2215

산행안내

9월12일(일)
▲광주Kj산악회 9월12일(일) 경북 포항&내연산 산행, 영주체육관 06:00, 동아병원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누 차장 06: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光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69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지국 안내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